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토끼의 재판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토끼가 지혜로 위기에 처한 선비를 도와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호랑이, 토끼, 선비, 재판, 보은

한국문화 • **목표** :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한다.
• **요소** : 선비, 과거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한국적인 표현을 배운다.
• **단어** : 선비, 호랑이, 토끼, 은혜
• **표현** : 은혜를 갚는다.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토끼의 재판’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친구와 서로 다툰 적이 있나요? 나는 내 말이 맞다 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둘 중에 누가 옳은지 말해 준다면 어떨까요?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깊은 산 속에서 벌어진 토끼의 재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두더지 신랑’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깊은 산 속을 지날 때였어요. 어디에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흥, 어흐흐응…….”

“큰일이다. 여기 근처에 호랑이가 있나 봐.”

선비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재빨리 걸었어요.

“어흥, 어흐흐응…….”

호랑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어쩐지 슬프게 들렸어요.

궁금해진 선비는 발길을 돌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 가 보니 깊은 구렁이에 커다란 호랑이가 빠져서 눈물을 툇툇 흘리고 있었어요.

“어흥, 어흐흐응……. 선비님, 제발 저를 살려 주세요.”

“너를 살려 주면 너는 나를 잡아먹겠지? 미안하지만, 알아서 잘 빠져나오너라.”

선비가 호랑이를 두고 그냥 떠나려 하자 호랑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를 꺼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꺼내 주세요.”

호랑이는 껴이꺼이 울며 애원했어요.

“정말이지?”

선비는 울고 있는 호랑이가 불쌍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래서 구해 주려고 근처에 쓰러져 있는 큰 나무를 끌고 와 구덩이에 던져 주었어요.

“자, 나무를 밟고 올라오너라.”

호랑이는 선비가 던진 나무를 밟고 구덩이에서 펄쩍 뛰어 올라왔어요.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생각보다 몸집이 컸어요.

선비는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갈 테니, 앞으로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그때, 호랑이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선비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흥! 사흘 동안 구덩이에 갇혀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걸!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는 목숨을 구해 준 은혜도 잊고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아니, 은혜를 갚지 못할망정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냐?”

선비는 떨렸지만 용기 내어 말했어요.

“사람이 파 놓은 구덩이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지?”

호랑이는 억지를 부리면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선비는 호랑이를 구해 준 것을 후회했어요.

그때 마침 토끼가 지나갔지요. 선비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저기 지나가는 토끼에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 나중에 떠말하면 안 된다.”

호랑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토끼도 동물이라서 자기편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토끼야, 토끼야. 큰 귀를 가진 영리한 토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보렴.”

선비는 토끼에게 호랑이를 구해 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음, 지금 저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을 해 달라는 건가요?”

선비의 말을 끝까지 들은 토끼가 물었어요.

“그래, 호랑이가 불쌍해 내가 구해 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선비가 대답했어요.

“사람이 구덩이를 파 놓아서 내가 빠진 거지! 그런데 왜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어흥!”

호랑이가 찻찻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그런데 그 구덩이를 사람이 판 게 맞나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호랑이는 토끼에게 구덩이가 있던 곳을 알려주었어요. 토끼는 구덩이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러니까 호랑이님이 여기, 이 구렁이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었다고!”

“여기 구렁이에 어떻게 빠지셨다고요?”

토끼가 다시 물어보자, 성격이 급한 호랑이는 구렁이로 들어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다고!”

“그럼 이 나무도 원래 구렁이에 있었나요?”

“아니지. 이 나무는 저쪽에 있었지.”

눈치 빠른 선비가 재빨리 나무를 구렁이에서 빼내며 말했어요.

“아하! 그랬군요. 그럼, 선비님은 이제 가려던 길을 가세요.”

토끼가 말했어요. 선비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어서 나를 여기서 꺼내지 못 해! 어흥!”

그제야 토끼의 속셈을 알아차린 호랑이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야. 구렁이에서 네 잘못이나 뉘우치렴.”

토끼가 말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렁이에 다시 갇히고
말았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마지막에 다시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고 토끼가 뭐라고 했나요?
그래요.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럴 때 ‘은혜를 갚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호랑이는 도움을 받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은혜도 모른다.’라고 한 거지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누가 도와줬나요?

맞아요. 과거 시험을 치러 가던 선비였어요. 조선 시대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불렀어요. 선비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쳤어요. 과거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지요. 선비와 과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토끼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토끼는 선비와 호랑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구덩이를 직접 보았어요. 그 후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또 몇 마디 말로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어요. 토끼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지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토끼처럼 지혜롭게 상대방을 도와주도록 하세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